나를 뛰어넘다 http://www.dkc.ac.kr
SmArt 동강대학
정시 1차모집 : 1월 11일까지 062)520-2555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8/0℃ 목포 -5/1℃ 여수 -6/2℃

단기 4344년 (음력 12월 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75호 1판 2011년 1월 10일 월요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자 전남도는 사료 운반차량 및 저장창고에 대한 방역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방역요원들이 9일 나주시의 한 사료공장을 둘러보며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I 급속 확산…양계농 초토화 우려

영암 3곳도 확진 판정 속 의심신고 15건 전남 초비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영암 시종면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된데 이어 인근 10㎞ 이내 오리농가 3곳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됐다. 도내 최대 양계농가 밀집 지역인 나주에서도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H5'형 AI 항체가 확인됐다.

특히 나주가 전남 최대의 닭·오리 사육 지역(닭 603만5000마리·오리 148만 마리)으로 300여 농장이 밀집해 있는데다,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 AI에 한번 감염되면 살처분·매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도내 양계농가의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9일 "최근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 3곳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들 농장의 경우 고병원성에 무게를 두고 확진이 나오기 전인 8일 반경 500m 이내 오리 6만8000마리를 살처분·매몰했다.

전남도는 또 나주시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과 공산면 종오리 농장에서도 'H5'형 AI 항체가 검출돼 고병원성 확진이 나오진 않았지만 6만8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해 매몰했다.

지역 양계농가에서는 영암·나주·함평·구례 등에서 의심 신고만 15건에 이르는데다, 나주에서도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H5'형 AI가 검출되면서 고병원성 AI가 도내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미 영암의 경우 지난 7일 시종면 한 오리농가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근 3㎞까지 위험지역, 10㎞ 이내를 경계역으로 설정, 차단 방역에 나섰지만 이 일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1차 방역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나주의 경우 도내 최대 닭·오리 사육 지역인 만큼 자칫 AI가 확산할 경우 지역 양계시장의 '초토화'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번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시·도 발생지 등으로부터 사료운반차량 등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도내 사료반입차량을 총 45대로 제한하고 업체별 사료저장소 1곳에만 갈 수 있도록 이동 범위를 최소화하며, 경계 방역대를 넘을 때마다 철저한 소독을 지시했다. 특히 신고가 늦었거나 과밀사육, 축사환경 불량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북까지 구제역 백신 접종

정읍·김제·부안 등 6곳…전남도 촉각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구제역 사태를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북 지역에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키로 하면서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경기·인천, 강원, 충남·북 지역의 모든 소와 돼지 종돈·모돈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면서 "전북도 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무주 등 6개 시·군의 소와 종돈·모돈에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구제역이 발생한 11개 시·군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인근 경산·청도의 소와 돼지 종돈에 대해서도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접종 대상은 전국적으로 소 217만3000마리, 돼지 61만1000마리 등 모두 278만4000마리로 늘어났다. 전북도의 경우 6개 시·군의 접종 대상 소·돼지는 26만4000마리(소 19만4600마리·돼지 6만9400마리)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이 128만2345마리(3305농가)에 이르는 만큼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 미발생 지역인 전남과 경남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취지다.

전북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충남북 지역의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료 및 가축 이동이 빈번한 서해안 일부 지역을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농식품부측 설명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예방 접종 대상 지역 확대 방침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논산시청에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한우단지가 소재한 나주·함평 등으로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특히 백신 접종 없이 이번 구제역 사태가 진정될 경우 국내 유일의 '청정 축산 지역'에 대한 독보적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내 174곳에 마련한 방역초소를 중심으로 사료 운반차량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방역 쉬운 섬으로 종축장 이전해 주오" 신안군 건의 눈길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대가축 종축장을 방역이 쉬운 섬으로 이전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9일 건의문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종축장과 분산장이 위치한 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 또는 노출되면서 축산업 기반이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가축방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통제가 손쉬운 신안 섬지역으로 '대가축 종축장 및 분산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종축(씨수소)을 보유하고 우량 한우 유전자 보존과 선발 등을 전담하는 축산전문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시험장(강원도 대관령)과 농협중앙회의 젖소 개량사업소(경기도 고양시), 한우 개량사업소(충남 서산시) 등이 구제역 발생 지역이거나 가까운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은 청정구역인데다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이 손쉬워 가축 방역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농림부 대책반 전남 급파 단장에 정승 차관

농림수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승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초동 대응 특별대책반을 편성, 나주에 급파했다.

9일 정승 차관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주, 영암, 함평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AI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키스해링 지상전 ▼앤디 마우스 (Andy Mouse·96.5×96.5cm·실크스크린·1986년)

앤디 워홀과 미키마우스의 결합

키스 해링에게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은 멘토이자 친구였다. '앤디 마우스'(Andy Mouse)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미키 마우스 이미지에 앤디 워홀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와 가발을 착용한 모습이다. 해링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심볼인 미키 마우스와 앤디 워홀을 조합시켜 가장 '미국적인 도상'을 탄생시켰다. 사람들의 손에 높이 들려 환호를 받는 앤디 마우스는 자신의 스승을 미국 문화의 표상으로 삼고 싶은 해링의 바람을 담고 있다.

'팝 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은 오는 2월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광주지하철 농성역 인근)에서 계속된다. (062)613-5396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57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